



시장규모

채권,주식,코인시장규모



지난해 글로벌 채권시장 규모가 총 133조 달러로 파악됐다. 채권시장은 지난 40년 동안 7배 가량 성장했고, 특히 중국의 채권시장은 연평균 13%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22년기준)

14일 글로벌데이터인포그래픽업체 비주얼 캐피탈리스트(Visual Capitalist)가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tatements, 이하 'BIS')의 추정치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채권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최고의 채권 시장은 미국으로 글로벌 채권시장 점유율이 39%(51.3조 달러)에 달했다. 이중 미국채는 26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해 해당 채권(부채)에 대한 이자로 5340억 달러를 부담(지불)했다.

출처 : 스마트투데이(<https://www.smarttoday.co.kr>)

순위: 세계 최고의 채권 시장

채권시장순위	국가/지역	미결제 총부채	총채권시장점유율
1	유에스.	\$51.3T	39%
2	중국	\$20.9T	16%
3	일본	\$11.0T	8%
4	프랑스	\$4.4T	3%
5	영국	\$4.3T	3%
6	캐나다	\$4.0T	3%
7	독일.	\$3.7T	3%
8	이탈리아	\$2.9T	2%
9	케이맨 제도	\$2.7T	2%
10	브라질*	\$2.4T	2%
11	대한민국*	\$2.2T	2%
12	호주.	\$2.2T	2%
13	네델란드	\$1.9T	1%
14	스페인	\$1.9T	1%
15	인도*	\$1.3T	1%
16	아일랜드	\$1.0T	1%
17	멕시코*	\$1.0T	1%
18	룩셈부르크	\$0.9T	1%
19	벨기에	\$0.7T	>1%
20	러시아*	\$0.7T	>1%

<https://www.visualcapitalist.com/the-109-trillion-global-stock-market-in-one-chart/>

글로벌 주식 시장(주별)

세계에서 가장 심층적인 자본 시장을 보유한 미국은 전 세계 주식 시가총액의 42.5%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가까운 경제인 유럽 연합을 상당한 차이로 앞지릅니다.

2023년 2분기 기준 글로벌 시가총액 점유율을 기준으로 한 세계 주요 주식 시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2분기 기준 글로벌 시가총액 점유율을 기준으로 한 세계 주요 주식 시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지역	시가총액	공유하다 (%)
 미국	\$46.2T	42.5%
 유럽 연합	\$12.1T	11.1%
 중국	\$11.5T	10.6%
 일본	\$5.8T	5.4%
 홍콩	\$4.3T	4.0%
 영국	\$3.2T	2.9%
 캐나다	\$3.0T	2.7%
 호주	\$1.7T	1.5%
 싱가포르	\$0.6T	0.6%
 나머지 선진국 시장	\$10.2T	9.4%
 나머지 신흥 시장	\$10.0T	9.2%
글로벌 합계	\$108.6T	100.0%

2023년 2분기 기준 글로벌 시가총액 점유율을 기준으로 한 세계 주요 주식 시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지역	시가총액	공유하다 (%)
미국	\$46.2T	42.5%
유럽 연합	\$12.1T	11.1%
중국	\$11.5T	10.6%
일본	\$5.8T	5.4%
홍콩	\$4.3T	4.0%
영국	\$3.2T	2.9%
캐나다	\$3.0T	2.7%
호주	\$1.7T	1.5%
싱가포르	\$0.6T	0.6%
나머지 선진국 시장	\$10.2T	9.4%
나머지 신흥 시장	\$10.0T	9.2%
글로벌 합계	\$108.6T	100.0%

2023년 109T급 글로벌 주식시장



SIFMA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글로벌 주식시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2분기 기준 글로벌 주식 시장 점유율

- 북아메리카
- 아시아
- 유럽
- 오세아니아
- 선진국 및 신흥국 시장

2024년에는 신흥 시장 전반에 걸친 기업 실적 성장이 다른 주요 지역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실적 성장



** "MSCI MSCI 세계 이머징인덱스 시장으로 대표되며, 지수는 선진 시장 주식의 성과를 측정합니다.

출처: 세계거래소연맹, SIFMA 추정치, 포브스, 블룸버그, JP모건, MSCI. 라운딩으로 인해 총 100개가 아닐 수 있음. 시장가치, 매출, 이익, 자산 등을 고려한 포브스 2000 방법론에 근거한 세계 최대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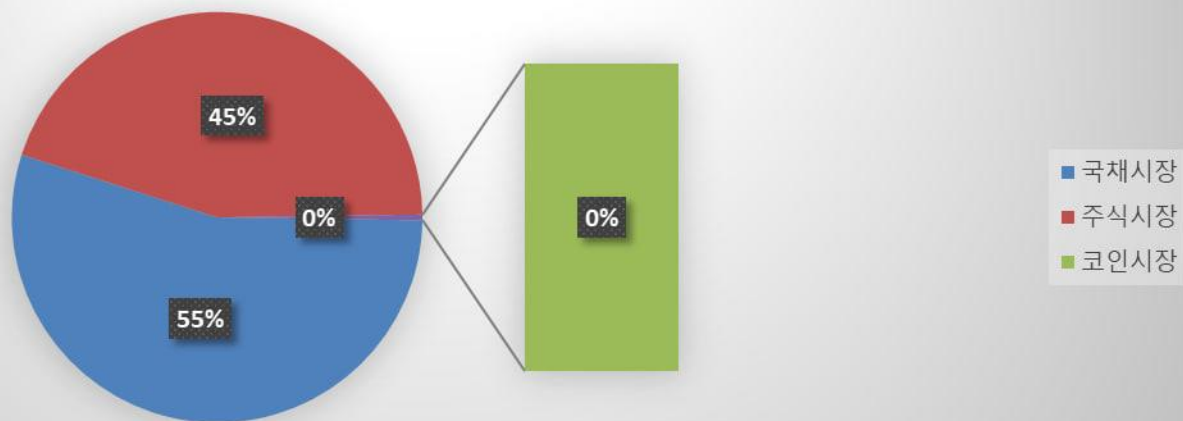


1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현재 가상화폐 시장 규모는 모두 1조1천억 달러(약 1475조 원) 안팎으로 집계된다. 이 가운데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비중은 48.5%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 2023. 10. 11.



글로벌 투자시장 (단위:조달러/ 1조달러 1300조원)					
구분	글로벌 시장규모	구성비	비고	미국구성비	금액
국채시장	133	54.71%	22년기준	39%	53.2
주식시장	109	44.84%	23년2분기준	42.50%	46.87
코인시장	1.1	0.45%	23년10월기준	미국합계	100.07
합계	243.1	100.00%	합계 미국구성비		41%
원화환산시		31경6천조원			
2022년 한국 예산 607조원					
한국 500년동안 합계 예산이 전세계 1년간 시장규모					

글로벌 시장규모(국채22년,주식23년2분기,코인23년10월)



미국 상위 50대 자산운용사

다음은 관리 중인 총 자산을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진 미국 최대 자산 관리자 목록입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BlackRock은 AUM 측면에서 미국 최대 자산 관리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19,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 기관 및 개인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위 10명의 자금 관리자는 총 37조 달러가 넘는 AUM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화 환산지 환율 1300원 적용				
블랙록	8487	1.3	11,033	1경1천조원
뱅크 오브 아메리카	7100	1.3	9,230	9천2백조원
피델리티	3742	1.3	4,865	4천9백조원
스테이트 스트리트	3480	1.3	4,524	4천5백조원

계급	회사	총 AUM, US\$b	대차 대조표
1	블랙록 주식회사	8,487	2022년 6월 30일
2	뱅크 오브 아메리카	7,100	2022년 6월 30일
3	피델리티 투자	3,742	2022년 6월 30일
4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	3,480	2022년 6월 30일
5	모건스탠리	3,068	2022년 6월 30일
6	JP 모건 체이스	2,743	2022년 6월 30일
7	골드만삭스 그룹	2,495	2022년 6월 30일
8	캐피탈그룹	2,200	2022년 6월 30일
9	BNY멜론	1,937	2022년 6월 30일
10	핀코 *	1,820	2022년 6월 30일
11	뱅크 오브 아메리카	1,411	2022년 6월 30일
12	푸르덴셜 파이낸셜	1,410	2022년 6월 30일

15:34 KT 36%

× 국내 은행 순위 : 자산, 수익성, 연봉, 안전성, 2...

2022 은행 총자산 순위

※ 국내 시중 4대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순위	은행명	총자산(단위:백만원)
1	KB국민은행	464,773,397
2	신한은행	421,601,836
3	KEB하나은행	408,953,347
4	우리은행	397,357,115
5	중소기업은행(IBK)	368,177,498
6	농협은행주식회사(NH)	359,714,478
7	한국산업은행(KDB)	276,421,899
8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제일)	86,885,215
9	부산은행(BNK)	66,425,752
10	대구은행(DGB)	64,118,498
11	수협은행(SH)	47,180,494
12	한국씨티은행	46,431,795



블랙록 회장

- 래리 핑크 회장

2020년 1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자신이 투자한 회사 경영진들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다. 핑크는 연례 서한에서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적을 공개하지 않으면 투자금도 회수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그의 편지는 ESG 경영을 글로벌 기업들의 화두로 만들었고 산업계 전반에 새로운 투자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그에게는 ‘ESG 경영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따라붙었다.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난 핑크는 미국 UCLA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뒤 UCLA 앤더슨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MBA)를 취득했다. 그는 1976년 월가 투자은행 퍼스트보스턴에서 채권 트레이더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최연소 전무를 지내는 등 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하지만 채권 투자 과정에서 1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하는 바람에 중도 퇴사했다. 핑크는 1988년 동료 7명과 함께 투자회사 블랙스톤 산하에 ‘블랙스톤금융관리’라는 자회사를 세웠다. 1992년에는 블랙스톤으로부터 분사해 ‘검은 바위’라는 의미의 블랙록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후 2008년 금융위기 과정에서 메릴린치와 바클레이즈의 자산운용 부문을 잇따라 인수해 덩치를 키웠다. 그가 움직이는 운용 자산은 10조 달러(약 1경 2000조 원)에 달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75JZ08W9>

2019년 2월 7일 삼성전자 주식의 5.0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삼성전자 이외에도 LG전자(5.04%)와 SK하이닉스(5.08%), 실리콘웍스(5.13%), 엔씨소프트(7.11%), 신한지주(6.13%), KT&G(6.59%), 금호석유화학(7.31%), 대우조선해양(5.57%)을 가지고 있다.

출처 : 씨이오뉴스-CEONEWS-씨이오뉴스(<http://www.ceomagazine.co.kr>)

유대인이 미국에서 성공한 이유

미국에서 발간되는 유대인 관련 서적이거나 자료들은 대부분 유대인에 의해 쓰여진 것이다. 非유대인이 쓴 책은 거의 없다. 反(반)유대주의자들의 책은 일반 서점에서는 구할 수가 없다. 트라이앵글, 바이킹 프레스, 하퍼 콜린즈, 사이먼 앤 슈스터, 랜덤 하우스 등 미국 내 주요 출판사나 대형 서점망은 대부분 유대인 소유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유대학자들이 다른 민족이나 종교에 대한 비판을 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미국에서는 비유대인이 유대인 문제를 거론하면 '非지성', 나아가 '反유대주의'가 되지만, 유대인 학자가 他(타)민족에 대해 말하면 '학문' 대접을 받는 기이한 현상이 있다.

때문에 미국에서 유대인 문제는 公論(공론)에 부쳐지는 적이 없다. 미국이나 서유럽에서는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반유대주의의 古典(고전) <시온장로의정서>(유대인의 세계 정복 음모를 기록한 내용. 유대인들은 이 내용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다-편집자 주)를 찾아볼 수 없다. 이란 등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영문판으로 제작된 것이 야시장에 돌아다닐 뿐이다.

미국의 권력구조를 평면도로 보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 上院(상원)과 下院(하원)으로 구성된 의회, 연방대법원, CIA 와 FBI 등 정보기관, 언론 그리고 광범위한 경제계와 금융계를 들 수 있다.

650만명에 불과한 유대인이 미국의 정치·경제·금융·교육·문화를 쥐고 흔들다는 견해는 지나친 감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것은 상당 부분 사실이다. 즉 미국에는 평면 권력 외에 '유대 권력'이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한다. 유대 권력'은 유대인이 국가의 요직을 차지하고 직접 참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미국 각 분야의 권력체계를 유기적으로 잘 연결하여 유대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하게 활용하는 데서 나온다. 유대 권력은 공동체의 빈틈없는 결속력·조직력을 극대화하여 얻은 영향력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특성이 있다.

미국의 여러 소수 민족 가운데 유독 미국 유대인이 오늘날과 같은 대성공을 거둔데 대해 많은 사람들은 경탄과 함께 적지 않은 의문을 갖고 있다. 3000만명이 넘는 흑인이나 1700만명의 히스패닉, 그리고 1000만명에 육박하는 아시아계와 비교할 때, 유대인들의 괄목할 만한 성공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다.

유대인은 오랜 기간 유럽 각국에서 박해를 받았다. 이 박해는 종교적인 요인과 민족주의적 요인 두 가지로 나뉜다. 때문에 머리 좋고 부지런한 유대인이지만, 유럽에서는 기독교 사회 밑바닥의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유대인의 미국 이민

유대인의 미국 집단이민 역사는 대체로 다음 4기로 나눌 수 있다. 1654년 9월 뉴암스테르담(오늘날의 뉴욕)에 정착한 브라질 출신 마라노(Marano: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23명이 미국에 정착한 최초의 유대인이다.

그 다음이 1840년부터 1885년 사이에 있는 독일 '시골 유대인'의 이민이다. 이들 독일 유대인 중에는 바르부르그, 쉬프, 셸리그만, 쿤 뢰브, 골드만 삭스 등 오늘날 미국 금융기업의 先祖(선조)들이 있었다. 독일계 유대인들이 비록 촌사람들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막 산업화 단계에 접어든 유럽사회를 목격하고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경제·금융·상업 분야에 막 눈을 뜨기 시작한 미국의 개척 후기와 맞물려 이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입지를 굳힐 수 있었다.

미국은 1860년대부터 세계 제1차 대전 직전까지 약 50년간 이민의 문을 크게 열어놓았다. 건국 초기~19세기 중엽 미국 이민이 대체로 개신교도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19세기 중엽 이후의 이민자들의 출신 민족과 종교는 다양했다. 유대인의 제3기 이민이 이때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러시아, 중부유럽, 동유럽의 유대인 260만명이 미국 땅을 밟았다. 이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폴란드·루마니아 등에서 벌어진 유대인 박해(포그럼)를 피해서 미국으로 탈출한 사람들로, 이들의 후예가 오늘날 미국 유대인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1983년에 나온 영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를 보면 이들의 미국 정착 초기의 생활양상이 잘 그려져 있다. 히틀러가 집권한 1933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5년까지 10여 년간 15만명의 유럽 출신 유대인들이 나치의 박해를 피해 미국에서 피난처를 구했다. 이것이 유대인의 제4기 미국 이민이다.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비롯해 독일·헝가리·이탈리아·프랑스 등 유럽 각지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이 지식층 유대인들은 미국의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의 학문·과학·기술·문화·예술은 그다지 뿌리가 깊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 지식인 유대인은 미국에서 크게 환영을 받았다. 당시 이주한 유대 지식인들의 직종을 보면 변호사가 900명, 의사가 2000명, 음악가가 1500명, 작가가 1700명, 기타 학자와 교수가 3000명이었다. 그중에는 노벨상 수상자가 10여 명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의 활약으로 戰後(전후) 미국은 과학·기술·문화·예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핵무기 개발사업인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원자무기를 완성시킨 두뇌는 거의 전부가 유대인이었다.

미국 4대 일간지 경영진·필자의 35%가 유대인

미국 유대인은 약 650만명으로 미국 전체인구의 2.2%에 해당된다. 미국 유대인은 뉴욕·뉴저지·플로리다·일리노이·캘리포니아 등 몇개 州(주)에 밀집되어 있다.

미국 유대인은 아시아계 인구 980만보다도 적다. 그러나 이들의 영향력은 인구와는 전혀 무관하다. 미국 유대인은 소수민족으로 분류되지 않고 백인인구에 포함된다.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간단한 통계를 살펴보자. 노벨상 수상자 중 87명이 미국 유대인이다. 이들은 특히 의학과 물리학 부문에서 많은 수상자를 배출했다. 1969년에 신설된 노벨경제학상의 경우, 수상자의 3분의 2가 미국 유대인이다.

유대인은 평균적으로 10명 선의 연방 상원의원과 30명 선의 연방 하원의원을 배출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 8년 동안 12명의 유대인이 각료 또는 각료급 공직에 임명됐다. 연방대법관 9명 중 2명이 유대인이다.

미국의 大富豪(대부호) 100명 중 22명이 유대인인데, 이들 대부분은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다. 미국 대기업의 CEO 중 17.5 %가 유대인이다.

미국의 4대 일간지인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전 세계 학생들이 동경하는 아이비리그의 총장 및 교수진의 40%가 유대인이다. 미국 50대 영화사의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캐스팅 담당, 감독 중 60%가 유대인이다. 뉴욕·워싱턴·시카고·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에서 밀집된 법무법인(로펌)에 종사하는 변호사의 50 % 이상이 유대인이다. 미국인의 15%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데 비해, 유대인의 전문직 종사비율은 40% 수준이다. 하나는 勞組(노조)다. 미국 유대인은 노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전국노동연맹(AFL)은 시가 제조업자 출신인 새뮤얼 고퍼스라는 영국계 유대인이 창설했다. 두 번째는 유통망이다. 유대인은 곡물 메이저 중 2개社(사), 原油(원유)기업 중 4개사, 식품 메이저 중 3개사를 소유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주요 백화점과 대형 할인매장 체인을 소유하고 있다. 메이시스, 블루밍데일, 니먼 마커스, 파일네스, 옴포리움, 아이 매그닌 등 유명한 미국 백화점이 유대 자본이다. 대형할인매장인 프라이스클럽, 홈 디포 등도 유대인이 설립했다.

커피점 스타벅스와 아이스크림 배스킨 라빈스도 유대인 기업이다. 많은 IT 기업(AT & T, Dell, Oracle, Unisys 등)을 유대인이 설립했다. 대단위 생산 시설이 필요치 않으나 가득롤이 매우 높은 헬레나 루빈슈타인, 레블론, 에스테 로더, 비달 사순 등 화장품 업체와 켈빈 클라인, 랄프 로렐, GAP 등 패션분야에서도 유대 자본의 참여는 두드러진다.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을 거치면서 로스차일드 가문은 막대한 富(부)를 축적했다. 로스차일드은행은 유럽에서 전쟁이 있을 때마다 交戰(교전) 당사국 양측에 戰費(전비)를 대여해주고 이익을 취했다. 이후 산업혁명 말기, 로스차일드 가문은 유럽 각국의 철도 부설, 석유·광산개발에 투자해 부를 더욱 늘렸다. 프랑스에 진출한 로스차일드 가문은 금융업 외에 보르도 포도주 생산에도 투자하여 오늘날 보르도 와인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데 일조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수에즈운하 사업에도 참여해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로스차일드의 금융제국은 미국의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을 예측하고 19세기 중엽부터 미국진출을 시도했다. 미국 금융계의 始祖(시조) 격인 바르부르그, 쉬프, 쿤, 뢰브 등 독일계 유대인들은 이 시기에 로스차일드가 미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파견한 尖兵(첨병)들이었다.

사실 미국을 건국한 청교도들도 돈 문제에 관한 한 유럽인들과 같이 무관심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미국의 재정·금융체계의 확립과 운용은 결국 유대인의 몫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미국에서는 건국 이래 화폐발행과 중앙은행 문제로 늘 골치를 앓았다. 미국 화폐를 최초로 만든 벤저민 프랭클린, 제3대 토머스 제퍼슨, 제4대 제임스 매디슨, 제7대 앤드루 잭슨, 제16대 에이브러햄 링컨 등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집요하게 미국 금융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로스차일드 중심의 거대 유럽 국제금융세력과 싸웠다.

우여곡절 끝에 미국은 1791년과 1816년 등 두 차례에 걸쳐 합중국은행(Bank of United States)을 설립했다. 이 중앙은행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강력한 중앙은행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됐다. 그 후 한동안 미국에는 중앙은행이 없었다. 1863년에 가서야 재무부 산하에 금융감독청(OCC)이 만들어져 중앙은행의 기능을 수행했다. 이후 19세기 말엽 공황의 기미가 보이자 1907년 이르러 국가금융위원회가 설립됐다. 이 위원회가 후일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로 발전하게 됐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절인 1913년 12월 미국의회는 '연방준비법'을 통과시켰다. 이법에 의거해서 FRB가 창설되었다. 초대 FRB 이사회 의장은 찰스 햄린이었지만, FRB 태동 時(시)부터 幕後(막후)의 實權(실권)은 이사인 폴 바르부르그라는 유대인이 갖고 있었다고 한다. 발족 이래 現(현) 벤 버냉키 의장까지 모두 14명의 FRB 의장 중 절반이 유대인이었다. 역대 이사진에도 유대인이 다수 포함됐다.

FRB에 참가하는 민간은행의 리스트는 비공개다. 시티뱅크, 체이스맨해튼은행, 모건 트러스트, 뉴욕 골드만삭스 은행, 뉴욕 쿤 뢰브 은행 등 미국의 대형 은행 외에 베를린 로스차일드 계열 은행, 런던은행 등 유럽 유수의 은행들이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FRB가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처럼 주권국 정부에 속한 公(공)기관 성격의 중앙은행이 아니라 유럽권 은행도 참여하는 민간은행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FRB는 항상 '유대인 음모론'의 핵심에 서곤 한다.

FRB 개혁하려 했던 존 F 케네디

FRB 의장이나 이사(14년 임기, 7명)는 형식적으로 상원의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인사문제와 정책 모두 행정부의 지도를 받지 않는 완전한 독립기구다. 정부기관이나 의회로부터 감사를 받지 않는다. FRB는 미국의 입법·행정·사법부 다음 가는 '제4府(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부로부터 완전 독립되어 전 세계 금융과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흔히 FRB가 갖고 있는 독립성과 권한은 민간경제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극도로 자제하는 미국의 오랜 전통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FRB의 막강한 3대 기본권한(통화정책 결정 및 집행,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금융기관의 감독, 화폐발행과 정부 여신 등)에다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한 이자율과 통화량 조정, 지급준비율과 재할인을 결정이라는 수단까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구가 정부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은 놀라울 따름이다. 1933년 이후에는 FRB의 독립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당시까지 당연직으로 이사를 맡고 있던 재무부장관마저 이사진에서 제외시켜 FRB에 대한 형식적인 정부 참여마저 차단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이처럼 고도의 독립성을 보장 받는 FRB 체제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그는 특히 FRB가 정부의 채권을 담보로 달러를 정부에 공급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졌다고 한다. 케네디는 '發券(발권)주권'을 FRB로부터 찾아오기 위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FRB를 폐지하고 재무부 산하에 중앙은행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암살당하는 바람에 이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는 秘話(비화)가 전해진다.◎

미국을 지배하는 유대인 파워의 실체

- 미국 연방 상원의원 10명 선, 연방 하원의원 30명 선, 연방대법관 9명 중 2명 역대 FRB의장의 절반
 - ⊙ 미국의 大富豪 100명 중 22명, 미국 대기업의 CEO 중 17.5 %
 - ⊙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의 경영진과 주요 필진의 35 %
 - ⊙ 아이비리그 총장 및 교수진의 40%
 - ⊙ 미국 50대 영화사의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캐스팅 담당, 감독 중 60%
 - ⊙ 주요 법무법인(로펌)에 종사하는 변호사의 50 % 이상
 - ⊙ 트라이앵글, 바이킹 프레스, 하퍼 콜린즈, 사이먼 앤 슈스터, 랜덤 하우스 등 주요 출판사-대형 서점망 소유
 - ⊙ 곡물 메이저 중 2개社, 석유 메이저 중 4개社, 식품 메이저 중 3개社 소유
 - ⊙ 블루밍데일, 프라이스클럽, 스타벅스, 배스킨 라빈스 등도 유대인 소유

오늘날의 유대인[편집]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에는 전 세계의 유대인 인구가 약 1천 8백만 명 정도였으나 히틀러가 집권하는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로 약 1천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오늘날 전 세계 134개국에 약 14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 미국에 약 580만 명, 이스라엘에 약 6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

그밖에 캐나다, 헝가리, 우크라이나, 프랑스, 아르헨티나, 러시아, 독일 등에도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 소련의 경우 홀로코스트의 탄압을 피해서 자국으로 들어온 유대인들을 만주까지 도피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는데 이에 따라 그 일대에 유대인 자치주가 형성되었다. 유럽의 유대인 인구는 240만 명, 라틴 아메리카는 약 5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1948년 5월 14일 건국된 이스라엘은 유대인이면 누구나 시민권을 발급할 수 있게 허용하는데, 이는 '귀환법' 또는 '귀향법'이라고 한다. 이 법률상 조부모 중 유대인이 있거나 유대교로 개종한 이들 모두 유대인으로 간주되며, 또 유대인 이민자들과 가족관계인 비(非)유대인들에게도 이스라엘 이민을 허용한다. 이스라엘의 귀환법이 유대교에서 전통적으로 따르는 유대인의 정의보다 일부러 더 광범위하게 정의한 이유는 유대인의 친척들도 외부에서는 유대인으로 여겨 반유대주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유대인이 다수민족인 국가는 이스라엘뿐이다. 유럽에서 유대인이 가장 많은 곳은 프랑스이고, 그 다음이 영국이다. 그 외, 독일, 헝가리, 네덜란드 등이 있다.^[34] 유럽에서 유대인 인구가 가장 빨리 증가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과 동유럽으로 현재 많은 유대인이 재이주해 온다.

즉, 유대인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교육받고 만들어지는 민족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민족 사회임에도 단일민족정책을 펴고 아슈케나짐, 세파르딴, 베타 이스라엘 등 출신 성분에 따라 빈부 격차가 심한 편임에도 간신히 국가 유지가 가능해지는 것.

한국인들이 제사도 지내고 점도 보고 교회에도 가고 하듯이 유대인들 모두가 근본주의적인 전통을 고수하며 살지는 않고 적당히 다른 종교나 문화도 누리며 평범하게 살거나 혹은 개종하여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많긴 한데, 이들도 편의상 유대인으로 분류하고는 있지만 하레디나 일부 랍비들은 인정 못하는 것 같다. 유대인 하면 키파에 히브리어를 쓰고 이상한 복장에 고리타분한 이미지를 연상시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복장에 다른 민족들처럼 살고 히브리어가 아닌 자국어로 대화한다. 사실 랍비는 점잖은 케이스고 하레디는 아예 이스라엘 주류 사회와도 갈등을 벌이는 꼴통들이라...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이 된다. 즉 모계사회이다. 그러나 모계사회라고 해서 여성의 지위가 높은 것은 아니다. 유대인 사회가 모계사회인 것은, 상술한 유대민족의 전통과 종교, 윤리 규범을 밖에서 눈에 띄지 않게 가르치려면 어머니가 집안에서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종족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그리 된거지 여성의 권리가 강해서 그런게 아니라는 뜻. 물론 지금은 현대사회인 만큼 여성의 권리도 많이 신장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스스로를 정통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하레디를 보면 실상을 어느정도 드러낸다. 아버지가 유대인, 어머니가 타민족이라면 당연히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서 유대사회의 심사를 받아 유대인인가 아닌가 판단하게 된다. 보통 랍비를 통해 심사를 받는다. 유대인이 같은 유대인인 누군가에 대해 혐담을 할 때의 단골 레퍼토리가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소문이나 (남성의 경우) 비유대인 여성^[13]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이다.

블랙록, 채굴업체 상위 5곳 중 4곳 2대 주주-BTC 금융 기준
'비트코인 스텐다드' 염두!?

블록미디어 | 2023년 8월 28일 오전 7:51 | [Digital Asset, Policy, 비즈니스](#)

Top 5 Miners By Market Cap			BlackRock 	
<small>companiesmarketcap.com @TheBTCTherapist</small>			Directly	Shareholder Rank
1	 Riot Blockchain <small>RIOT</small>	\$1.92 B	6.14%	#2
2	 Marathon Digital Holdings <small>MARA</small>	\$1.83 B	6.44%	#2
3	 Cipher Mining <small>CIFR</small>	\$0.74 B	0.88%	#2
4	 Hut 8 Mining <small>HUT</small>	\$0.50 B	0.00%	-
5	 TeraWulf <small>WULF</small>	\$0.41 B	2.28%	#2

트코인뉴스닷컴이 27일 엑스(트위터)에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블랙록은 5대 비트코인 채굴업체 중 4곳인 라이엇 블록체인(Riot Blockchain),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Marathon Digital Holdings), 사이퍼 마이닝(Cipher Mining), 테라울프(Terawulf)에서 대주주 지위를 가지고 있다. 또 채굴회사 주식을 보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도 가지고 있다.

블랙록 전 이사 "SEC, 3~6개월 내 비트코인 ETF 승인할 것"

BlackRock의 전 전무이사 두 명은 미국의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이 기본적으로 완료된 거래라고 말했습니다.

팀 하키 ([Tim Hakki](#))

The screenshot shows a news article on a Korean website. The main headline reads: "BlackRock CEO Larry Fink: 암호화폐는 '모든 통화를 초월할 것'" (BlackRock CEO Larry Fink: Cryptocurrency will 'surpass all currencies'). A sub-headline says: "오늘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의 사장은 비트코인에 대한 찬사를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Today, the CEO of the world's largest asset manager continued to praise Bitcoin). The article is dated 2023년 7월 15일 (July 15, 2023) and is 2 minutes long. The author is Mat Di Salvo. A video thumbnail shows Larry Fink speaking at a panel. The left sidebar features a Bitcoin price chart and a CoinGecko link. The bottom of the image shows a Windows taskbar with a search bar and various application icons.

블랙록(BlackRock)의 래리 핑크(Larry Fink) 사장은 오늘 “암호화폐는 어떤 통화도 초월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투자로서 암호화폐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높였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의 CEO는 금요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BlackRock이 현물 시장 [비트코인 ETF](#)에 대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암호화폐는 “차별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자산군 대비 가치.”

브레턴우즈 회의에 따라 구축된 국제 통화 체제이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인 1944년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턴우즈에서 열린 44개국이 참가한 연합국 통화 금융 회의에서 탄생되었다.

협정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설립되었다. 통화 가치 안정, 무역 진흥, 개발 도상국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 주요한 목표였다.

- 미국 달러화를 기축 통화로 하는 금환본위제도의 실시 : 금 1온스를 35달러로 고정시키고, 그 외에 다른 나라의 통화는 달러에 고정.

- 조정가능한 고정환율 제도의 실시 : 원칙적으로는 상하 1%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며, 국제수지의 근본적인 불균형(fundamental disequilibrium)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 이상의 변동을 허용.

달러 위기[편집]

제2차 세계 대전 후 피폐된 서구 각국에 대해 압도적인 금보유를 배경으로 한 미국 달러는 절대적 우위를 차지했고 국제경제상 커다란 지위를 차지하는 한편 IMF 체제 아래서도 달러는 금의 대리(代理)라는 탁월한 지위를 인정받아 왔다. 또한 미국 달러는 전후 유럽, 일본 등의 부흥,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원조 등 자유세계의 번영기금으로 천문학적 금액이 투하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 말부터 서구의 눈부신 경제성장에 비해 미국경제는 정체하고 국제수지도 만성적이고 대폭적인 적자를 누적시켜 금 준비와 대외 단기달러채무 잔고의 비율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비롯된 달러의 지위 동요는 1960년 가을에 표면화되어 그 후 이런 경향은 만성화되고 심각화되어 금융 위기인 **달러 위기(dollar 危機)**로 이어졌다.

붕괴[편집]

베트남 전쟁 등으로 인한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전비조달을 위한 통화량 증가에 의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달러 가치가 급락하자 일부 국가들이 금태환을 요구하였고, 결국 금태환 정지선언인 1971년의 8·15 닉슨 조치는 이런 달러위기의 타개를 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나 이 조치에 따라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 국제 통화제도는 혼란에 빠지고 세계무역은 축소화의 경향을 지지게 되며 한편 후진국에는 악영향을 주었다.

971년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 정부는 35달러당 금 1온스를 교환해 주는 금 본위제를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금이 늘어나지 않으면 달러 자체는 늘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막대한 전쟁 비용이 발생함.
3. 금은 늘어나지 않는데 달러를 마구 찍어내는 것을 보는 프랑스 등 몇몇 나라는 정말 미국에 달러를 바꿔 줄 만한 금이 있을지 의문이 생김.
4. 미국 달러를 돌려줄 테니 약속한 대로 금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함.
5. 당시 미국 대통령 닉슨은 금과 달러 교환을 못해주겠다고 선언하며 금본위제를 포기함.
6. 닉슨쇼크 이후 금 1온스의 가치는 35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올라감. 다르게 말하면 미국 달러 가치가 1/30 토막난 것임.